국토연구 제109권(2021.6): pp37~52 http://dx.doi.org/10.15793/kspr.2021.109..003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결정요인에 관한 지역 비교 연구*

Region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ants of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E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정보선 Jung Bo-Seon**, 이상엽 Lee Sang-Youb***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generations to support the generation-friendly housing support policy that solves the social problems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age. A fixed-effect panel logit model has been developed with 2nd~6th KLoSA data for elderly parent households and adult children's households.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common effects are as follows. The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generations is high during the physical decline period in the life cycle of elderly parents and rearing period in the family life cycle of adult children. The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generations is low when living with children in the elderly parent household. On the other hand, the discriminatory effects in urban areas were the economic constraints of elderly parents and the time constraints of adult children. Accordingly, the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overseas studies findings are also applied in korea. Second, it is judged that the family function is performed despite of nuclear family society. Third,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generation-friendly housing support policy plan.

Keywords: Time Support, Money Support, Residential Proximity, Informal Support, Household-friendly Housing Support Policy

I. 서론

고령자에 대한 복지는 공공기관의 책임이나 고령자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Daatland and Loweinstein 2005). 특히, 빠른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복지재정의 위기는 공공기관이 고령자를 돌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대 간 지리적 거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Pettersson and Malmberg 2009), 이는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근간으로 이전되는 고령 부모를 위한 비공식적 관리가 제도적 관리를 보완할 수

* 이 논문은 2020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또한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제1저자) | Ph.D. Dep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 | Primary Author | boseon1022@naver.com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Dep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 | Corresponding Author | sangyoub@konkuk.ac.kr

www.kci.go.kr

있기 때문이다(Kolk 2017).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1]과 싱가포르[2]는 세대 친화적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17년도 3세대 동거형 주택[3]을 공급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문제, 실버복지 문제, 육아 문제 등을 세대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유도하여 주요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싱가포르의 세대 친화적 주거지원 정책을 유용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한정된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세대 친화적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 행태를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많은 국외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 과정상 노년기의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령 부모가 자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거주하거나 손자녀 양육, 가사 도움 등이 필요한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mpton and Pollack 2014; Seltzer, Yahirun and Bianchi 2013; Zhang, Engelman and Agree 2012; Rogerson, Burr and Lin 1997). 초혼율의 증가는 조모와 근거리 거주하는 특성을 가진 기혼 부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신윤정 201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주거 환경이면서 세대 간 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예측 요인으로서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함에도 국내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이해하고, 지역별 행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의 지리적 근접성의 국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 부모가구의 주거입지를 기준으로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세대 간 거주행태의 차별점이 존재하는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오늘날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근간으로 가족 간 돌봄이 여전히 지원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세대 친화적 주거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고령 부모의 생애주기와 성인 자녀의 가족생활주기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1) 일본은 2016년도 주생활기본계획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시책 중 하나로, 세대 간 도우면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3세대(부모, 자녀, 손자녀) 동거·근거리 거주를 촉진함. 구체적으로 주생활기본계획(2016)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동거·근거리 거주하고자 할 경우 이사 지원 등을 제공함(하세가와 히로시(2015); 이상림, 이지혜(2017)에서 재인용).

2) 싱가포르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동거 혹은 근거리에서 거주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함. "Married Child Priority Scheme"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아파트 단지 혹은 반경 2km 내 거주를 위해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자보다 분양 기회를 2배 더 부여하고, 같은 주택 거주를 위해 신청할 경우 분양 기회를 3배 더 부여하고, 근거리 거주를 위해 기존 공공주택을 구입할 경우 Proximity Housing Grant(PHG) 2만 달러 보조금을 지원함(이상림, 이지혜 2017). PHG 보조금은 2015년에 도입하여 2017년까지 약 1만 1,000가구를 지원하였고, 긍정적 평가를 받아 2018년에는 보조 금액을 상향하고 근거리 기준을 반경 2㎞에서 4㎞까지 확대함(진미윤 2019).

3) 세대별 현관, 주방, 욕실 등 설치하여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독립된 거주 공간을 통해 자녀 독립 지원, 육아문제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실버복지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주택 모델로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www.kci.go.kr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 자료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 2008년(2차 자료)부터 2016년(6차 자료)까지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 이상 고령 부모 가구와 가장 근거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자녀 가구로 설정하였다. 분석 모형은 고정효과 패널 로짓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지역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은 고령 부모 가구의 주거 입지를 기준으로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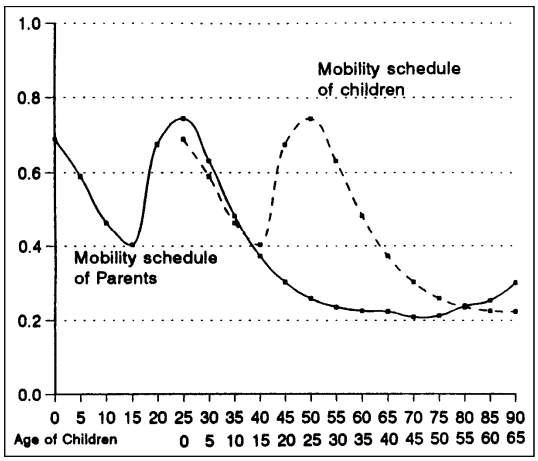
1)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개념적 모델

Lin and Rogerson(1995)은 부모와 자녀 세대의 생애주기와 주거이동을 모델링하여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Figure 1>은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이동성 패턴(실선)과 자녀의 이동성 패턴(점선)에 따른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Rogerson, Burr and Lin 1997).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즉 공간적 분리에 대한 개념적 모델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자녀가 독립적 삶을 시작하는 청년기에 시작된다(Lin and Rogerson 1995).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고령 부모는 성인 자녀가 독립하도록 장려하고 도움을 제공하며(Rossi and Rossi 1990), 가족 관계는 세대 간 독립성을 향상시키므로 성인 자녀와 지리적 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Lin and Rogerson 1995).

2단계는 세대 간 공간적 분리의 안정화 또는 조정

Figure 1_ Mobility Cycle through the Life Course: Parents vs Children



Source: Lin and Rogerson 1995.
Note: Mobility schedule of children is derived by moving the parent' schedule 25 years later(Lin and Rogerson 1995).

화 과정으로 성인 자녀는 생애주기상 교육을 마치고 이동하여 직업을 갖고 가족을 형성한다(Lin and Rogerson 1995). 한편, 성인 자녀의 아이가 존재하는 경우 세대 간 지원이 증가하여(Shulman 1975) 부모에게 가까이 이동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일부 고령 부모의 주거이동은 은퇴기부터 시작하여 약 60세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Lin and Rogerson 1995).

물론 세대 간 공간적 분리의 주기는 모든 개인이 모든 단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성인 자녀는 부모 집을 떠나지 않기도 하고(Brody, Litvin, Hoffman and Kleban 1992), 평생 부모와 따로 살 수도 있다(Lin and Rogerson 1995). 그럼에도 세대 간 근접성 모델은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동성 패턴을 기반으로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세대 간 이전과 세대 간 근접성

이타주의 이론에 따르면, 세대 간 이전은 수령인의 복

www.kci.go.kr

지에 대한 증여인의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부모와 자녀는 이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금전 이전에 대한 시간 이전의 교환(exchange)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세대 간 이전은 필요가 가장 큰 방향으로 이동한다(Ioannides and Kan 1999). 즉, 시간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전 이전의 방향은 부유한 세대에서 가난한 세대로 이전되고,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부모의 지원이 더 필요한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다(이길제 2016). Altonji, Hayashi and Kotlikoff(1996)은 Cox(1987)의 행동모델에 기초한 연구결과, 소득과 금전 수령은 부정적 관계이므로 이타주의 가설을 수용하였다.

한편, 교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효용 극대화를 위해 결핍된 욕구, 자원 등이 충족되는 경우 서비스, 재화 등을 교환하므로(White, Klein and Martin 2015) 세대 간 이전은 시간 이전의 대가로 금전 이전이 이루어진다(Ioannides and Kan 1999). 즉, 부모가 손자녀 돌봄 등 시간을 이전하고 자녀가 용돈, 병원비, 생활비 등 금전 이전을 교환하거나,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자녀가 노부모 돌봄 등 시간을 이전하고 부모는 증여, 상속 등 금전 이전을 교환한다(최연실, 고선주, 권희경, 남영주 외 2015). Cox(1987)는 세대 간 이전이 이타주의 동기 혹은 이전 받은 서비스의 교환[4]으로 이전되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소득과 금전 수령은 긍정적 관계이므로 이타주의 가설을 기각하였다(Cox 1987).

통상적으로 세대 간 이전은 부모와 자녀가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Compton and Pollak 2014). 즉, 세대 간 근거리에 거주할수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Buex and Wel 2008; Compton and Pollak 2014) 손자녀 양육, 노부모 간병 등의 지원을 활발하게 이전하는 것이다(Hank 2007; Ward, Klein and Martin 2014). 결국,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은 호혜적 교류를 통해 세대 간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1) 국외연구

국외 선행연구는 고령 부모나 성인 자녀 관점에서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결정요인 또는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Lin and Rogerson(1995)은 미국의 1987년도 SFH(Society for Family Health)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부모의 연령, 교육, 건강 상태, 자녀 수 등은 근접성 예측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Rogerson, Burr and Lin(1997)은 미국의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자료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고령 가구를 분석하여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는 부모와 자녀 세대의 필요에서 기인하며 노부모의 기능제한 증가가 근접성 예측에 일관된 지표라 강조하였다.

유럽의 Hank(2007)은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중·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근접성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어머니일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근접성이 높은 반면, 국가별 고령자 지원 특성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작용하였다. Michielin and Mulder (2007)은 네덜란드의 NKPS(National Kinship Panel Study) 2002～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부모에게 건강 문제가 있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거리가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여자 형제가 있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hielin, Mulder and Zorlu(2008)은 네덜란

4) 여기서 교환이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도움, 방문, 관심 등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Cox 1987).

www.kci.go.kr

드 1999～2003년 SSD(Social Statistical Database)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관점에서 분석결과 자녀가 딸일수록, 아이가 있을수록, 최근 출산할수록, 이혼할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수록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mpton and Pollack(2009)은 자녀의 대부분은 25마일 내 어머니가 거주하는 것을 파악했으며, Zhang, Engelman and Agree(2012)은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 2000～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노부모의 건강악화로 지원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변화하며 기대 수명이 길수록 자녀와 근거리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Seltzer, Yahirun and Bianchi(2013)은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와 HRS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와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어머니의 기능 제약 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아들에 비해 딸일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반면, 어머니의 교육 연수가 많을수록, 기혼·동거일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mpton and Pollack(2014)은 미국의 NSFH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 관점의 분석결과, 어머니 혹은 시어머니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노동참여율이 약 4～10%p 높고, 남편 소득이 적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수록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lk(2017)은 스웨덴의 1980～2007년까지의 인구등록부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가 비전문직일수록, 자녀가 대도시에서 출생할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반면, 딸이 대학 교육을 받았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도시 대비 대도시에서 출생한 자녀와 부모 간 근거리 거주는 수도권의 풍부한 노동시장,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때문이라고 하였다.

2) 국내 연구

박경숙(1997)은 미국의 1993년 AHEAD, 일본의 DSFH(Demographic Survey of Family Life Course and Household Structure Changes) 1989년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분석결과, 미국은 고령 부모의 소득이 적고, 건강상태가 나쁘고,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고령 부모의 소득이 적고, 자녀수가 많고, 미혼이고, 장자일수록 높은 반면, 고령 부모가 농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길제, 최막중(2017)은 한국의 한국노동패널 2003～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신혼 가구인 자녀 관점에서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신혼 가구의 가구소득이 높고, 자가이고, 맞벌이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존재할수록 높은 반면,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지역주택 가격수준 비율이 높을수록 지리적 근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선, 이상엽(2019)은 한국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른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의 성별효과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부모가 고령층이고, 건강상태가 나쁘고, 일상생활기능 제약이 존재하고, 서울·광역시에 거주하고, 아이 수가 많고, 근로 활동을 할수록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은 생애주기 단계, 사회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기에(Pettersson and Malmberg 2009) Lin and Rogerson(1995)의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 필요 요인에 따른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세대 간 근

www.kci.go.kr

접성과 이전의 상호 작용을 고찰하기 위해 시간 이전과 금전 이전을 양방향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거리 거주를 통한 세대 간 이전이 이타주의 혹은 교환 동기로 이전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고령화 추세로 자녀 지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야기되는데(Lin and Rogerson 1995), 고령자에게 가족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Daatland and Loweinstein 2005). 셋째, 고령 부모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별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자의 연령, 성, 교육 수준 등 지역별 차이에 따라 노후소득, 자산 등 경제적 자원과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등 사회적 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7) 지역별 세대 간 근거리 거주 행태의 차별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III.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1. 모형설정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로짓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모형을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오차항(λ)에 대한 추론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이용한 가설검정 결과, p값은 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1% 내에서 귀무가설(H_0)을 기각하였다. 결국,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은 불일치추정량이며, 대립가설(H_1) 하의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을 의미하는 지표를 w_i^*로 가정할 때, $w_i^* > 0$인 경우는 $w_i = 1$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내의 근거리에 자녀가 거주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w_i^* < 0$인 경우는 $w_i = 0$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초과의 원거리에 자녀가 거주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때, 시간(t)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데이터의 개체 특성을 반영하는 오차항(u_i) 및 개체 특성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e_{it})을 포함한 추정방정식은 <식 1>과 같다.

$$w_{it}^* = (\alpha + u_i) + \beta X_{it} + \gamma Y_{it} + \gamma Z_{it} + e_{it} \quad <식\ 1>$$

여기서 X_i는 고령 부모가구 특성이며, Y_i는 근거리 자녀가구 특성이고, Z_i는 세대 간 이전 특성이다.

2. 분석자료

분석 데이터는 2008년(2차)~2016년(6차)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5]로, 비동거 자녀로부터 거리를 대중교통 소요시간을 측정한 자료[6]이므로 부모와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을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분석 대상은 가구주[7] 연령이

5)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회·경제 정책 수립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중·고령자 대상의 패널조사(HRS, ELSA, SHARE)와 비교하도록 자료를 생산하여 고령화정책,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조사주기는 격년(짝수년도)이며, 설문내용은 인적 속성, 가족, 소득, 자산, 고용, 건강, 삶의 질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됨.

6)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설문 문항으로 '비동거 자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로 구성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으로 측정하여 조사함.

7)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5차 조사부터 가구주 여부를 조사함. 자료 특성상, 2~4차 조사는 5, 6차 조사의 가구주 아이디와 동일 아이디를 추출함. 다만, 해당 기간 가구주가 자녀로 변동, 이혼·사별로 변동의 가능성 존재함.

www.kci.go.kr

만 55세[8] 이상 고령 부모가구와 최근거리 거주하는 만 20세[9] 이상 성인 자녀가구이다. 분석 표본은 고령 부모가구와 최근거리 자녀가구[10]를 추출하여 일대일 대응 구조의 패널 자료로 구축하였다. 자료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대응 구조 표본은 9,653개이고, 패널 그룹은 2,459개이다. 하위 분석 표본은 고령 부모가구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동'의 도시 지역[11]과 '읍·면'의 시골 지역[12]으로 구분하였다. 도시 지역 표본은 7,256개이고 패널 그룹은 2,220개이다. 시골 지역 표본은 1,877개이고 패널 그룹은 562개이다.

3. 변수선정

종속변수는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13] 여부이다. 설명변수는 고령 부모가구, 성인 자녀가구, 세대 간 이전 특성으로 나뉜다. 고령 부모가구 특성은 가구주 연령 계층(만 55~65세 미만, 65~75세 미만, 75세 이상), 성별(남성=1), 가구총소득[14](로그값), 가구순자산[15](천만 원), 총소득·순자산 그룹(고소득·고자산, 저소득·고소득, 고소득·저자산, 저소득·저자산)[16], 거주지역(도시=1), 동거 자녀(유=1) 등을 포함하였다. 연령층별 상이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범주화하여 이용하였다. 경제적 자립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가구총소득, 가구순자산의 수준값 및 그룹값을 이용하였다. 동거 자녀 유무에 따라 비동거 자녀와 지리적 근접성은 상이할 것이고, 지역 변수도 자녀의 이촌향도로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상이할 것이라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자녀가구 특성은 자녀의 연령층(만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세 이상), 혼인상태(사별·이혼=1), 근로상태(근로=1) 등을 포함하였다. 자녀의 가족생활주기, 혼인상태, 근로상태 등에 따라 부모의 시간 이전, 금전 이전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려하였다.

세대 간 이전 특성은 금전 이전과 시간 이전으로 구분된다. 세대 간 금전 이전[17]은 양방향으로 자녀에서 부모로 금전 이전[18](수령=1), 부모에서 자녀로 금전

---

8) 생애주기 과정상 노년기의 주거이동은 은퇴기 경험 시 발생하는(Litwak and Longino 1987)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퇴직 연령인 만 55세를 기준으로 고령 부모를 정의함.

9) 20대는 독립적 세대 형성 등으로 이동성이 최고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 대출, 부동산 계약, 근로계약 등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20세를 기준으로 성인 자녀를 정의함.

10) 고령 부모가구와 가장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성인 자녀가구가 다수인 경우, 임의로 연령이 가장 많은 자녀를 추출함. 고령 부모와 근거리 거주 자녀가 다수인 비율은 38.01%이고, 한 명인 비율은 61.99%임.

11) 대도시인 서울시와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소도시인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행정구역 단위가 '동'에 거주하는 지역을 포괄함.

12) 행정구역 단위가 '읍'과 '면'에 거주하는 지역을 포괄함.

13) 본 연구의 지리적 근접성은 교통편, 이동시간 등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리적 관계를 의미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내 자녀 거주 여부로 측정함.

14)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수급액, 이전소득, 기타소득, 근로장려세제지원금을 합산함.

15) 총자산(거주주택, 거주주택외부동산자산, 금융자산)에서 총부채(총부채잔액, 임대보증금)를 차감함.

16) 가구총소득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소득, 저소득으로 구분하고 가구순자산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자산, 저자산으로 구분하여 경우의 수에 따라 조합함.

17) 금전 이전이란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경우, 지원한 경우와 청구된 금액을 대신 자불한 경우를 말함. 예를 들면 의료비, 보험비, 주택구입할부금, 전(월)세금, 학비 등을 금전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지원한 경우를 의미함.

18)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등의 일정한 기간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www.kci.go.kr

이전(지원=1)을 고려하였다. 세대 간 시간 이전도 양방향으로 고려하였다. 부모에서 자녀로 시간 이전은 10세 미만 손자녀 돌봄(돌봄=1)을 이용하였다. 맞벌이 등으로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자녀의 시간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의 시간 이전에 대한 필요를 예상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자녀에서 부모로 시간 이전은 노부모 돌봄 대리변수로 건강상태(악화=1), 일상생활기능[19](제약=1)을 활용하였다. 건강상태, 일상생활기능 등 건강 측정은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모의 필요에 대한 지표로 역할을 한다(Goodstein 2016).

IV. 기술통계 및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에 이용되는 모든 변수의 지역별 기초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내 자녀가 거주하는 고령 부모, 즉 자녀와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고령 부모의 평균 비율은 도시 지역이 46.2%로 시골 지역의 44.1%에 비해 높다.

고령 부모 연령층의 평균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은 젊은 노인층이, 시골 지역은 최고령 노인층의 거주 비율이 높다. 건강상태로 인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고령 부모의 평균 비율은 도시 지역이 63.5%로 시골 지역의 56.4%에 비해 많다. 고령 부모의 가구총소득, 가구순자산, 가구총소득·가구순자산 그룹별 등 경제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시골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 부모의 평균 비율은 도시 지역이 34.9%로, 시골 지역의 23.1%에 비해 높다. 근거리 자녀 연령층의 평균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은 청년층이, 시골 지역은 중년층 거주 비율이 높다. 근로활동을 하는 자녀의 평균 비율은 도시 지역이 71.7%로 시골 지역의 70.7%에 비해 소폭 높다.

고령 부모의 건강상태, 일상생활기능 등 건강 수준은 상대적으로 시골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고령 부모의 평균 비율은 도시 지역이 5.3%로 시골 지역 3.7%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시간 제약 요인이 많은 도시 지역 자녀의 아이 양육을 부모가 지원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정기적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평균 비율은 도시 지역이 5.5%로 시골 지역의 3.4%에 비해 높다. 정기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한 평균 비율은 도시 지역이 0.2%로 시골 지역의 0.05%를 크게 상회하였다. 전반적으로 세대 간 금전 이전은 주택소비, 기타 재화소비 등 소비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이 시골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분석결과

<Table 2>는 고령 부모가구와 성인 자녀가구 간 지리적 근접성의 고정효과 패널로짓 분석결과이고, <Table 3>은 지역별 분석결과이다. 모형(1)은 가구총소득·가구순자산 수준 값, 모형(2)는 그룹 값을 투입하였다. 모형(2) 구성으로 모형(3)은 도시 지역, 모형(4)는 시골 지역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모형

19)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조사하여 객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함. ADL은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척도로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사워하기 등 수행에 타인 도움 필요 여부를 조사함. IADL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척도로 식사 준비하기, 집안일하기, 물건사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수행에 타인 도움 필요 여부를 조사함. 일상생활기능은 ADL. IADL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제약이 존재하면 1, 자립이면 0의 값을 부여함.

www.kci.go.kr

Table 1_ Descriptive Statistics by Region

Variable			Total		Urban region		Rural region	
			Mean	Std.Dev	Mean	Std.Dev	Mean	Std.Dev
Dependent variable		Living within 30 minutes	0.457	0.498	0.462	0.499	0.441	0.497
Older Parent's attributes		Age 55-65	0.267	0.442	0.029	0.167	0.020	0.141
		Age 65-75	0.414	0.493	0.418	0.493	0.401	0.490
		Age 75 over	0.319	0.466	0.297	0.457	0.390	0.488
		Limit work by health (limitation=1)	0.618	0.486	0.635	0.482	0.564	0.496
		Household gross income	7.094	1.140	7.167	1.145	6.855	1.090
		Household net assets	21.162	31.059	22.220	31.234	17.706	30.231
		High income·High assets	0.179	0.384	0.201	0.401	0.109	0.312
		Low income·High assets	0.120	0.325	0.120	0.325	0.118	0.322
		High income·Low assets	0.214	0.410	0.231	0.421	0.160	0.367
		Low income·Low assets	0.487	0.500	0.448	0.497	0.614	0.487
		Cohabiting with child (cohabiting=1)	0.321	0.467	0.349	0.477	0.231	0.422
		Residence region (urban=1)	0.766	0.424	-	-	-	-
Adult child's attributes (closest child)		Age 20-30	0.027	0.162	0.284	0.451	0.209	0.407
		Age 30-40	0.331	0.471	0.351	0.477	0.265	0.442
		Age 40 over	0.642	0.479	0.620	0.485	0.714	0.452
		Marital status (widowed·divorce=1)	0.039	0.194	0.036	0.187	0.050	0.217
		Employment status (work=1)	0.715	0.451	0.717	0.450	0.707	0.455
Adult child's attributes (closest child)		Age 20-30	0.027	0.162	0.284	0.451	0.209	0.407
		Age 30-40	0.331	0.471	0.351	0.477	0.265	0.442
		Age 40 over	0.642	0.479	0.620	0.485	0.714	0.452
		Marital status (widowed·divorce=1)	0.039	0.194	0.036	0.187	0.050	0.217
		Employment status (work=1)	0.715	0.451	0.717	0.450	0.707	0.455
Intergenerational support's attributes	Time support	Health status (worse=1)	0.317	0.465	0.307	0.461	0.350	0.477
		Functional limitation (limitation=1)	0.158	0.365	0.154	0.361	0.172	0.377
		Care for grandchildren (Caring=1)	0.049	0.217	0.053	0.225	0.037	0.189
	Money support	Support money from child (Receiving=1)	0.050	0.218	0.055	0.228	0.034	0.182
		Support money to child (Giving=1)	0.001	0.037	0.002	0.041	0.0005	0.021
Year		Year 2008	0.226	0.418	0.225	0.418	0.229	0.420
		Year 2010	0.238	0.426	0.239	0.426	0.234	0.424
		Year 2012	0.234	0.424	0.235	0.424	0.232	0.422
		Year 2014	0.154	0.361	0.154	0.361	0.155	0.362
		Year 2016	0.148	0.355	0.147	0.355	0.150	0.357
N of obs			9,476		7,256		2,220	
N of group			2,434		1,877		562	

의 적합성·유의성은 각 모형에서 Wald 값이 Prob>=0.0000이므로 모든 모형이 유의수준 1% 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층이 만 55~65세 미만에 비해 만 65~75세 미만의 고령 부모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확률이 1.24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애주기의 노년기일수록 자녀와 근거리 거주 선호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분석결과, 65~75세 미만 연령층은 도시 지역에서만 5% 내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건강상태로 인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고령 부모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확률이 1.12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www.kci.go.kr

Table 2_ Logit Analysis of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Older Parent and Adult Children

Variable			Model(1)		Model(2)		
			coef	z	coef	z	odds ratio
Older Parent's attributes		Age 55-65	-	-	-	-	
		Age 65-75	0.217 **	2.16	0.216 **	2.14	1.241
		Age 75 over	0.132	0.85	0.129	0.83	
		Limit work by health (limitation=1)	0.122 *	1.86	0.122 *	1.85	1.129
		Household gross income	-0.031	-0.84	-	-	
		Household net assets	-0.001	-0.42	-	-	-
		High income·High assets	-	-	-0.133	-1.12	
		Low income·High assets	-	-	-0.140	-1.29	
		High income·Low assets	-	-	-0.233 **	-2.37	0.793
		Low income·Low assets	-	-	-	-	
		Cohabiting with child (cohabiting=1)	-1.086 ***	-12.05	-1.061 ***	-11.74	0.346
		Residence region (urban=1)	1.264 ***	5.17	1.285 ***	5.22	3.615
Adult child's attributes (closest child)		Age 20-30	-	-	-	-	
		Age 30-40	0.393 **	2.22	0.385 **	2.18	1.470
		Age 40 over	-0.521 **	-2.57	-0.530 **	-2.62	0.589
		Marital status (widowed·divorce=1)	0.430 **	2.51	0.434 **	2.54	1.544
		Employment status (work=1)	0.249 ***	3.49	0.245 ***	3.45	1.278
Intergenerational support's attributes	Time support	Health status (worse=1)	0.214 ***	3.31	0.214 ***	3.30	1.238
		Functional limitation (limitation=1)	0.180 **	2.00	0.173 *	1.92	1.189
		Care for grandchildren (Caring=1)	0.244 *	1.92	0.237 *	1.86	1.267
	Money support	Support money from child (Receiving=1)	0.244 **	2.03	0.250 **	2.08	1.284
		Support money to child (Giving=1)	0.857	1.40	0.864	1.41	
Year		Year 2008	-	-	-	-	
		Year 2010	-0.006	-0.10	-0.010	-0.16	
		Year 2012	-0.106	-1.57	-0.110	-1.64	
		Year 2014	-0.292 ***	-3.26	-0.299 ***	-3.35	0.741
		Year 2016	-0.106	-1.02	-0.114	-1.11	
Log likelihood			-3432.0893		-3429.4316		
Wald x^2			409.24		414.55		
Prob > x^2			0.0000		0.0000		
N of obs			9,476				
N of group			2,434				

Note: *** p<0.01, ** p<0.05, * p<0.1

되었다. 건강 감소나 필요 증가 시 지원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조정한다(Zhang, Engelman and Agree 2012). 지역별 분석결과, 건강상태로 인한 일 지장은 도시 지역에서만 10% 내 유의성을 보였다. 도시는 시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수준, 재화소비 수준 등이 높아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건강상태로 인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가족 지원의 필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저자산 부모에 비해 고소득·저자산 부모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낮고, 그 확률이 0.793배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령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Michielin and Mulder 2007; Rogerson, Burr and Lin 1997)와 유사하다. 지역별 분석결과, 고소득·저자산은 도시 지역만 10% 내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고령 부모는 가족의 지원에 덜 의존적이며 가까이 이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Pettersson and Malmberg 2009), 이러한 독

www.kci.go.kr

Table 3_ Logit Analysis of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Older Parent and Adult Children by Region

Variable			Model(3) Urban region			Model(4) Rural region		
			coef	z	odds ratio	coef	z	odds ratio
Older Parent's attributes		Age 55-65	-	-		-	-	
		Age 65-75	0.308 **	2.68	1.360	-0.130	-0.58	
		Age 75 over	0.225	1.26		-0.289	-0.87	
		Limit work by health (limitation=1)	0.126 *	1.65	1.134	0.074	0.54	
		High income·High assets	-0.155	-1.17		-0.110	-0.38	
		Low income·High assets	-0.128	-1.04		-0.260	-1.07	
		High income·Low assets	-0.199 *	-1.78	0.820	-0.347	-1.52	
		Low income·Low assets	-	-		-	-	
		Cohabiting with child (cohabiting=1)	-1.015 ***	-10.04	0.362	-1.442 ***	-6.38	0.236
		Residence region (urban=1)	-	-		-	-	
Adult child's attributes (closest child)		Age 20-30	-	-		-	-	
		Age 30-40	0.326 *	1.67	1.385	0.796 *	1.73	2.216
		Age 40 over	-0.442 **	-1.97	0.643	-0.683	-1.33	
		Marital status (widowed·divorce=1)	0.334 *	1.66	1.396	0.533	1.60	
		Employment status (work=1)	0.282 ***	3.47	1.325	0.196	1.27	
Intergenerational support's attributes	Time support	Health status (worse=1)	0.264 ***	3.57	1.303	0.046	0.33	
		Functional limitation (limitation=1)	0.057	0.53		0.476 **	2.71	1.610
		Care for grandchildren (Caring=1)	0.267 **	1.87	1.306	0.182	0.57	
	money support	Support money from child (Receiving=1)	0.373 **	2.80	1.452	-0.081	-0.27	
		Support money to child (Giving=1)	1.465 **	2.01	4.326	-12.216	-0.02	
Year		Year 2008	-	-		-	-	
		Year 2010	0.010	0.14		-0.091	-0.72	
		Year 2012	-0.143 *	-1.87	0.866	0.113	0.79	
		Year 2014	-0.372 **	-3.60	0.689	-0.027	-0.15	
		Year 2016	-0.213 *	-1.77	0.808	0.324	1.54	
Log likelihood			-2595.9991			-757.49075		
Wald x^2			277.71			147.49		
Prob > x^2			0.0000			0.0000		
N of group			7,256			2,220		
N of obs			1,877			562		

Note: *** p<0.01, ** p<0.05, * p<0.1

립적 성향은 시골에 비해 도시 지역의 고령자에게 뚜렷한 것으로 짐작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 부모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낮으며, 그 확률이 0.346배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면 다른 자녀가 근거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Pettersson and Malmberg 2009)와 유사하다. 지역별 분석결과, 동거 자녀는 지역과 상관없이 1% 내 유의성이 나타났다. 고령 부모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결핍을 가구 내에서 충족시킬 일차적 자원으로서 동거자녀 존재 시 비동거 자녀와 지리적 근접성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골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확률이 3.615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타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 거주는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높다는 연구결과(Rogerson, Burr and Lin 1997; Shelton and Grundy 2000; Michielin, Mulder and Zorlu 2008)와 동일한데, 이촌향도(離村向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시 지역은 취업 기회가 많기

www.kci.go.kr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자녀는 일자리를 얻는 반면, 시골 지역은 취업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성인 자녀가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Lin and Rogerson 1995). 결국, 자녀의 도시 이주로 시골 지역 부모와 도시 지역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이 감소하는 지역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박경숙 1997; Michielin, Mulder and Zorlu 2008).

자녀 연령이 만 20~30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만 30~40세 미만 자녀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고령 부모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 확률이 1.470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만 20~30세 미만에 비해 만 40세 이상 자녀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고령 부모가 거주할 가능성이 낮고, 그 확률이 0.589배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0~49세의 자녀의 경우 직업, 생활양식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 부모와 근거리로 이동할 경향이 가장 적다(Pettersson and Malmberg 2009). 지역별 분석결과, 만 30~40세 미만 자녀는 도시와 시골 지역 모두 10% 내에서 유의하였다. 일반적으로 30~40세 연령층은 가족생활주기상 출산기·양육기이면서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므로 육아·가사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별·이혼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고령 부모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확률이 1.54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혼·사별한 자녀는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이 높다는 연구결과(Compton and Pollak 2009; Michielin, Mulder and Zorlu 2008)와 동일하다. 자녀의 이혼·사별은 부모의 지원을 야기하는 사건이므로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교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효과 분석결과, 자녀의 이혼·사별은 도시 지역만 10% 내 유의성을 보였다. 여타 조건이 동일할 때, 도시는 시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심리적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와 근거리 거주할 것으로 짐작된다.

근로활동을 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고령 부모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 확률이 1.278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녀가 노동시장에 참여할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높다는 연구(Compton and Pollack 2014; Michielin, Mulder and Zorlu 2008) 결과와 유사하다. 지역효과 분석결과, 자녀의 근로상태는 도시 지역만 1% 내에서 유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근로형태는 근로시간 제약이 있는 고용직이 대다수이므로 근로활동에 따른 육아지원, 가사도움 등 시간 이전의 필요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에서 부모로 시간 이전 요인인 노부모 돌봄은 일관되게 분석되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부모에 비해 건강이 나쁜 고령 부모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 확률이 1.238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노부모 건강이 나쁠수록 자녀와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Zhang, Engelman and Agree 2012; Michielin and Mulder 2008; Hank 2007; Rogerson, Burr and Lin 1997). Silverstein, Parrott and Bengtson (1995)은 노부모 건강약화는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증가와 관련된 요인이라 하였다.

자립에 비해 일상생활기능 제약이 있는 고령 부모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 확률이 1.1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부모의 일상생활기능에 제약이 있을수록 자녀와 지리적 근접성이 높다는 연구결과(Seltzer, Yahirun and Bianchi 2013; Zhang, Engelman and Agree 2012; Rogerson, Burr and Lin 1997; Silverstein, Parrott and Bengtson 1995)와 동일하다. 지역효과 분

www.kci.go.kr

석결과, 노부모 돌봄의 시간 이전 요인은 모두 일관되게 분석되었다. Rogerson, Burr and Lin(1997)은 노부모의 일상생활 기능 제약 증가가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의 가장 일관된 예측 지표라 하였다.

부모에서 자녀로 시간 이전으로서, 손자녀를 돌본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확률이 1.26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맞벌이면서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자녀는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길제, 최막중 2017)와 유사하다. 지역별 분석결과, 손자녀 돌봄은 도시 지역에서만 5% 내에서 유의하였다. 자녀가 아이 양육 시 부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대 간 시간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Friedman, Hechter and Kreager 2008). 도시 지역은 시골 지역에 비해 고용직,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의 시간 제약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 양육 시 부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 이전이 용이하도록 상대적 주거 위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고령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성인 자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확률이 1.28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이타적 동기에서 세대 간 이전은 필요가 더 큰 방향으로 이동하므로(Ioannides and Kan 1999) 노년기의 은퇴는 정기적 소득 감소로 경제적 자립이 열악한 경우 정기적 금전을 지원하는 자녀와 근거리에서 거주하면 교류할 수 있다. 한편, 교환 동기에서 손자녀 양육, 가사도움 등 시간 이전 대가로 금전 이전을 교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지역별 분석결과, 부모에서 자녀로 금전 이전은 도시 지역만 5% 내 유의성이 나타났다. 도시는 시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재화소비 수준 등이 높아 예산 제약이 높으므로 금전 이전의 필요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공식적 지원을 위한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령 부모와 최근거리 거주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로짓 모형을 설정하여 부모의 주거 입지를 기준으로 도시와 시골 지역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공통적으로 고령 부모의 생애주기와 성인 자녀의 가족생활주기의 필요(need)에 따라 세대 간 근거리 거주를 일관되게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상 노년기의 건강상태 악화, 일상생활기능 감소 등의 건강수준 약화는 노부모 돌봄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근거리 거주 행태를 보였다. 둘째, 가족생활주기상 자녀의 출산기·양육기에 손자녀 돌봄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근거리 거주가 나타났다. 셋째, 고령 부모의 동거 자녀는 가구 내 고령 부모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차적 자원이므로 다른 자녀의 근거리 거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차별적으로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시간 제약 및 예산 제약에 따른 상이한 세대 간 거주 행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상이한 산업구조, 고용형태 등으로 자녀의 시간 제약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시 지역만 자녀의 근로활동, 손자녀 돌봄 등 부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대 간 근거리 거주 행태를 보였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시골 지역에 비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예산 제약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시 지역만 고령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경우, 세대 간 금전 이전이 필요한 경우 세대 간 근거리 거주 행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사회적·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세대 간 근거리 거주 행태도 연령, 성별, 건강상태, 일상생활기능, 손자녀돌봄, 이혼, 근로상태, 거주지역 등 부모 특

www.kci.go.kr

성과 더불어 자녀 특성이 유의미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국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만, 고령 부모의 소득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득 수준 그룹에 따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오늘날 핵가족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간 돌봄이 여전히 지원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제도적 차원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세대 친화적 주거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고령자와 신혼부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주거정책에서 나아가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대 친화적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대상, 소득, 자산 등 자격요건 및 신청요건의 개발·설립을 위해 선행적으로 근거리 거주 행태, 특성 등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 선정 시 최근거리 거주 자녀를 선정하여 모든 자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한 부모에 최대 10번째 자녀 정보까지 포함된 가족 단위 자료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응표본은 표본의 비독립성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항모형 또는 다층모형을 통해 여러 혹은 모든 자녀를 분석한다면 폭넓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차 조사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문항을 추가한 자료의 특성상 공식적 지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고령 부모가 공식적 지원 이용 시 자녀의 비공식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적 지원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박경숙. 1997. 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0권, 2호: 67-98.
   Park Keongsuk. 1997. Parent-Child Differences in Attitudes, Resources, and Constraints, and the Impacts of these Factors on Generational Proximit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Poputation Association of Korea* 20, no.2: 67-98.
2. 보건복지부.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Surve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2017*. Sejong: MOHW.
3. 신윤정. 2019.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hin Yoon-jeong. 2019. *A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Study of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 Long-Term Trends of Lowest-Low Fertility in East Asia: Transition in Marital and Fertility Behavior*. Sejong: Korea Institute Health And Social Affairs.
4. 이길제, 최막중. 2017. 신혼가구의 주거 입지에 나타나는 세대 간 시간 자원의 이전과 성별 효과. 국토계획 52권, 2호: 21-33.
   Lee GilJae and Choi MackJoong. 2017. P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time resource and its gender effect reflected in residential location of newly married household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 no.2: 21-33.
5. 이길제. 2016. 신혼가구 주택소비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과 시간의 이전 -남녀부모간 역할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Lee GilJae. 2017.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Asset and Time in Newly-Married Households' Housing Consumption : by differences of each spouse's parental supports. ph.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6. 이상림, 이지혜. 2017.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Sanglim and Yi Jihye. 1997. *Association between Housing and Fertility among Newly Married Couples*. Sejong: Korea Institute Health And Social Affairs.
7. 정보선, 이상엽. 2017. 고령가구의 주거입지에서 세대 간의 시간 및 금전이전이 지리적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효과. 부동산연구 29권, 4호: 7-24. http://doi.org/10.35136/krer.29.4.1
   Jung BoSeon and Lee SangYoub.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 on geographical proximity and gender. *Korea Real Estate Review* 29, no.4: 7-24. http://doi.org/10.35136/krer.29.4.1

www.kci.go.kr

8. 진미윤. 2019. 저출산 시대, 주거정책 혁신을 기대한다. 아시아경제, 4월 8일.
Jin Meeyoun. 2019. In the age of low birthrates, we look forward to innovating housing policy. *Asia Economy*, April 8.
9. 최연실, 고선주, 권희경, 남영주, 배희분, 성미애, 송명숙 외. 2015. 한국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하우.
Chio Yeonsil, Go Seonju, Gwon Heekyung, Nam Youngju, Bae Heeboon, Seong Mi-ae and Song Myeongsook et al. 2015. *Speaking of Korean Families: Phenomenon and Issues*. Seoul: Hawoo.
10.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가족 간의 정을 이어주는 "3세대 동거형" 주택 확대 공급. 4월 28일, 보도자료.
LH. 2017. The expansion of "third-generation cohabitation" housing that connects family ties. April 28, Press release.
11. Altonji, G., Hayashi, F. and Kotlikoff, L. 1996. The Effects of Income and Wealth on time and Money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NBER Working Paper,* no.552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12. Brody, M., Litvin, J., Hoffman, C. and Kleban, H. 1992. Differential effects of daughters' marital status on their parent care experiencess. *The Gerontologist* 32, no.1: 58-67. https://doi.org/10.1093/geront/32.1.58
13. Buex, F. and Wel, V. 1974. Parental bond and life course transition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Youth Studies Australia* 43, no.169: 71-88.
14. Compton, J. and Pollack, R. 2014. Family proximity, childcare, and women's labor force attachment. *Journal of Urban Economic* 79: 72-90. https://doi.org/10.1016/j.jue.2013.03.007
15. Compton, J. and Pollack, R. 2009. Proximity and coresidence of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Description and correlates. *University of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no.215.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6.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no.3: 508-546.
17. Daatland, O. and Lowenstein, A. 2005.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family-welfare state balance. European *Journal of Ageing* 2, no.3: 174-182. http://doi.org/10.1007/s10433-005-0001-1
18. Friedman, D. Hechter, M. and Kreager, D. 2008. A theory of the value of grandchildren. *Rationality and Society* 20. no.1: 31-63. https://doi.org/10.1177/1043463107085436
19. Goodstein, R. M. 2016. Boomeranged! The Effect of Coresiding Adult Children on Housing Transitions Among Older Homeowners. *FDIC Division of Depositor and Consumer Protection Working Paper,* no.2016-02. Washington, DC: FDIC Division of Depositor and Consumer Protection.
20. Hank, K. 2007.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 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no.1: 157-173.
21. Ioannides, Y. and Kan, K. 1999. The Nature of Two-Directional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Money and Time: An Empirical Analysis. *Department of Economics Tufts University Working Paper,* no.9917. Boston: Tufts University.
22. Kolk, M. 2017. A life-course analysis of geographical distance to siblings, parents, and grandparents in Sweden. *Population, Space and Place* 23, no.3: e2020. https://doi.org/10.1002/psp.2020
23. Lin, G. and Rogerson, P. 1995. Elderly parents and the geographic availability of their adult children. *Research on Aging* 17, no.3: 303-331. https://doi.org/10.1177/0164027595173004
24. Litwak, E. and Longino, F. 1987. Migration patterns among the elderl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27, no.3: 266-272. http://doi.org/10.1093/geront/27.3.266
25. Michielin, F. and Mulder, H. 2007. Geographical distanc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the Netherlands. *Demographic Research* 17: 655-678. http://dx.doi.org/10.4054/DemRes.2007.17.22
26. Michielin, F., Mulder, H. and Zorlu, A. 2008. Distance to Parents and Geographical Mobility. *Population, Space and Place* 14, no.4: 327-345. https://doi.org/10.1002/psp.509
27. Pettersson, A. and Malmberg, G. 2009.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as mobility attractions in Sweden. *Population, Space and Place* 15, no.4: 343-357. https://doi.org/10.1002/psp.558
28. Rogerson, A., Burr, A. and Lin, G. 1997. Changes in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 no.2: 121-136.
29. Rossi, A. and Rossi,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www.kci.go.kr

Aldine de Gruyter Inc.

30. Seltzer, J., Yahirun, J. and Bianchi, S. 2013. Coresidence and geographic proximity of mothers and adult children in step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no.5: 1164-1180. https://doi.org/10.1111/jomf.12058
31. Shelton, N. and Grundy, E. 2000. Proximity of adult children to their parents in great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6, no.3: 181-195.
32. Shulman, N. 1975. Life-cycle variations in patterns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no.4: 813-822. https://doi.org/10.2307/350834
33. Silverstein, M., Parrott, T. and Bengtson, V. 1995. Factors that predispose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no.2: 465-475. https://doi.org/10.2307/353699
34. Ward, R., Deane, G. and Spitze, G. 2014. Life-course changes and parent-adult child contact.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36, no.5: 568-602.
35. White, M., Klein, M. and Martin, F. 2015. Life-course changes and parent-adult child contact.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 4th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36. Zhang, Y., Engelman, M. and Agree, E. 2012. Moving considerations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rent–child residential proximity for older americans. *Research on Aging* 35, no.6: 663-687. https://doi.org/10.1177/0164027512457787

• 논문 접수일: 2021. 3. 22.
• 심사 시작일: 2021. 4. 26.
• 심사 완료일: 2021. 6. 15.

요약

주제어: 시간 이전, 금전 이전, 거주근접성, 비공식적 지원, 세대 친화적 주거지원 정책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결정요인을 지역별로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로짓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적 영향은 고령 부모의 생애주기상 건강수준 약화, 성인 자녀의 가족생활주기상 출산·양육 시 손자녀 돌봄이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높이는 반면, 고령 부모가구 내 일차적 자원으로서 동거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 지리적 근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별적 영향은 시골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만 고령 부모의 예산 제약, 성인 자녀의 시간 제약 발생 시 세대 간 근거리거주 행태를 보였다. 종합하면, 첫째, 부모와 자녀 간 지리적 분리 및 상대적 위치 결정은 생애주기, 세대 간 이전 특성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한다는 국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점, 둘째, 핵가족화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 거주하면서 가족 돌봄이 지원된다는 점, 셋째, 향후 세대 친화적 주거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가능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www.kci.go.kr